

전치사구와 국면*

조기석
(사이버한국외국어대)

Cho, Keeseok. 2010. Prepositional Phrase and Phase. *Linguistic Research* 27(3), 523-53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to constructions with prepositional phrases and suggest a revision of the notion of phases. In the recent version of the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the phases are confined to transitive verb phrases and complementizer phrases. This definition may hold for constructions with complement prepositional phrases, but may not hold for constructions with adjunct prepositional phrases.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e notion of phases is extended to cover not only transitive verb phrases and complementizer phrases, but also adjunct prepositional phrases. The new definition will enable the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s to account for a wider range of constructions.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phase, complement prepositional phrases, adjunct prepositional phrases, phrasal verb, prepositional verb, remerger constraint

1. 들어가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면불가침조건에서 사용되는 국면의 정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국면의 개념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에 있다. 국면의 정의에 대한 현행연구는 국면을 보문소구와 타동동사구에 국한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구도 부분적으로 국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변화사(particle)를 포함해서 전치사가 사용되는 구문은 구동사(phrasal verb) 구문, 전치사 동사(prepositional verb) 구문,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 그리고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구문 중에서 구동사 구문에서 사용되는 불변화사와 전치사 동사 구문에서 사용되는 전치사는 동사와 함께 어휘소를 형성한 후 목적어인 명사구와 병합하여 동사구를 형성한다. 따라서 전치사구를 형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의 전치사와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의 전치사는 동사와 하나의 어휘소를 형성하지 않고 목적어인 명사구와 함께 전치사구를 형성한다.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의 경우는 전치사구가 형성된 후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할당 받으며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의 경우는 전치사구가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는다. 본 연구에

* 본 논문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10년 연구비지원금을 받아 완성된 논문이다. 이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는 동사구 내에서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는 전치사구 부가어와 명사구 내에서 명사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는 전치사구 부가어는 국면으로 간주해야 함을 의문사 이동을 실험적 근거로 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

외형상 동사와 전치사 그리고 명사구로 되어있는 구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a. 구동사와 명사구 보충어
- b. 전치사동사와 명사구 보충어
- c. 동사와 전치사구 보충어
- d. 동사와 전치사구 부가어

(1a)의 구동사와 (1b)의 전치사 동사는 주로 관용적 표현이나 또는 숙어를 형성하는 구문이며 (1c)의 동사와 전치사구 보충어(prepositional phrase complement) 구문은 관용적 표현이나 또는 숙어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구동사나 전치사 동사처럼 내부의미역(internal theta role)을 보충어에 할당한다. 그리고 (1d)의 동사와 전치사구 부가어(prepositional phrase adjunct) 구문은 단순 수식어에 해당하는 부가어가 있는 구문이다. 먼저 (1a)의 구동사와 명사구 보충어 구문과 (1b)의 전치사동사와 명사구 보충어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자.

- (2) a. John gave up the project.
- b. John gave the project up.
- c.*John gave up it.
- d. John gave it up.
- e. Mary looked into the problem.
- f.*Mary looked the problem into.
- g. Mary looked into it.
- h.*Mary looked it into.

(2a)의 *gave up*과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2e)의 *looked into*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숙어 또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어휘목록(lexicon)에 어휘소(lexeme)로 등재되어 있다. (2a)의 *gave up*과 (2e)의 *looked into*는 하나의 어휘소를 형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의 개입, 대명사 목적어, 그리고 대명사 목적어의

접어화와 관련해서 차이를 보인다. *gave up*은 (2b)에서 목적어가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올 수 있고 (2c)에서 보다시피 대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며, 대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는 (2d)처럼 반드시 접어화(cliticization) 되어야 한다.

반면에 (2e)의 *looked into*는 (2f)에서 목적어가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올 수 없고 (2g)에 서처럼 대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며 (2h)에서 보다시피 대명사 목적어가 접어화될 수 없다. 따라서 *gave up*과 *looked into*는 비록 하나의 어휘소(lexeme)를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의 개입, 대명사 목적어, 그리고 대명사 목적어의 접어화와 관련해서 반대의 양상을 보이며, 따라서 구동사(phrasal verb)와 전치사동사(prepositional verb)로 각각 구분된다. 구동사의 경우는 동사와 전치사로 분석하지 않고 동사와 불변화사(particle)로 분석한다.¹⁾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는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의 개입과 관련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3) a. He gave up smoking.
 b.*He gave intentionally up smoking.
 c. She looked into the population problem.
 d.She looked intentionally into the population problem.

문장 (3a)의 구동사 *gave up*은 문장 (3b)에서 보다시피 부사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문장 (3c)의 전치사 동사 *looked into*는 (3d)에서처럼 부사의 개입이 가능하다.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는 이러한 통사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통사적인 공통점도 있다.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는 수동태변형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전치사구를 취할 수 없고, 의문사 이동에 있어서 전치사 동반이동(pied-piping)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 a. The prodigy gave up a puzzle.
 b. A puzzle was given up by the prodigy.
 c. The doctor looked into her eyes.
 d. Her eyes were looked into by the doctor.
 e.*He gave up his house and up his car.
 f.*She looked into the cause and into the effect.
 g. Which plan did she give up?

1) 접어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사부(syntactic component)에서 일어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통사부후 형태부(post syntactic morphological component)에서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구동사는 통사적으로 동사와 불변화사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동사와 불변화사가 분리되는 접어화현상은 통사부후 형태부에서 일어난다고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h.*Up which plan did she give?
 i. Which crime did she look into?
 j.*Into which crime did she look?

문장 (4a)의 구동사 *gave up*이 취하는 목적어 *a puzzle*은 (4b)에서처럼 수동태변형에 의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으며 (4c)의 전치사 동사 *looked into*의 목적어 *her eyes*도 (4d)에서처럼 수동태변형에 의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또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는 문장 (4e)와 (4f)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러 개의 전치사구를 목적어로 취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의문사 이동에 있어서 전치사 동반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 (4h)와 (4j)가 모두 불가능하다. 문장 (4e), (4f), (4h), 그리고 (4j)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동사 구문과 전치사 동사 구문에서 불변화나 전치사가 명사구 목적어와 병합하여 전치사구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²⁾

구동사와 전치사동사는 하나의 어휘소를 형성하며 수동변형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전치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명사 목적어, 부사의 개입, 그리고 전치사의 동반이동과 관련해서 반대의 양상을 보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어휘소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의 유사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의 비교

구분	구동사	전치사동사
어휘소	형성	형성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의 개입	가능	불가능
대명사 목적어	불가능	가능
대명사 목적어의 접어화	필수	불가능

- 2) (i) [_{VP} [_V V P] NP]
 (ii) [_{VP} [_V V P] NP and P NP]
 (iii) [_{VP} [_V V _] _]
 (iv) [_{VP} [_V V [_{PP} P NP]]
 (v) [_{VP} [_V V [_{PP} P NP] and [_{PP} P NP]]
 (vi) [_{VP} [_V V [_{PP} _ _]]

동사가 동일한 유형의 전치사구를 둘 또는 둘 이상 취하지 못하며 의문사 이동에 있어서 전치사 동반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i)와 같은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와 같은 통사적 구조에서 동일한 유형의 전치사구를 둘 이상 취하게 되면 (ii)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며 의문사 이동시 전치사를 동반하게 되면 (iii)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구조 (ii)와 (iii)에서는 모두 구성소(constituent)가 아닌 요소가 병합이나 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반면에 동사가 동일한 유형의 전치사구를 둘 또는 둘 이상 취할 수 있고 의문사 이동에 있어서 전치사 동반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iv)와 같은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와 같은 통사구조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전치사구를 둘 이상 취하게 되면 (v)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되며 의문사 이동시 전치사를 동반하게 되면 (vi)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v)와 (vi) 모두 통사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는 모두 (i)와 같은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의 개입	불가능	가능
수동태	가능	가능
다중 전치사구	불가능	불가능
전치사 동반이동	불가능	불가능
전치사구 형성	불가능	불가능

3. 전치사구 보충어와 전치사구 부가어

동사와 전치사구 보충어 그리고 동사와 전치사구 부가어의 경우는 동사와 전치사가 어휘소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동사와 전치사 또는 전치사구의 병합이 통사부에서 일어난다. 먼저 동사와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자.

- (5) a. She talked to the strange man.
 b.*She talked the strange man to.
 c. She talked to him.
 d.*She talked him to.
 e. She talked angrily to him.
 f. He was talked to by her.
 g. She talked to the strange man and to the strange woman.
 h. Who did you talk to?
 i. To whom did you talk?
 j. He talked about the new topic.
 k.*He talked the new topic about.
 l. He talked enthusiastically about the new topic.
 m. The new topic was talked about by him.
 n. He talked about the new policy and about the new trend.
 o. What policy did he talk about?
 p. About what did he talk?

문장 (5a)에서 *talked*와 *to*는 관용적인 의미나 숙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어휘소를 형성하지 않으며 (5b)에서 목적어가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또 (5c)에서처럼 대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나 (5d)에서 보다시피 접어화가 불가능하다. 또 *talked*와 *to*는 하나의 어휘소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5e)에서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가 개입할 수 있으며 (5f)에서와 같이 수동구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talked*와 *to*가 하나의 어휘소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to*는 목적어인 명사구와 우선 병합되며, 따라서 (5g)처럼 다중 전치사구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전치사가 동사와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의문사 이동시 (5i)와 같은 전치사 동반이동이 가능하다. 문장 (5j)의 *talked about the new topic*은 *talked to the strange man*과 마찬가지로 동사가 전치사구 보충어를 취하는 구문으로서 어휘소 형성,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의 개입, 그리고 수동구문과 관련해서 (5k)~(5p)에서 보다시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동사가 전치사구 부가어를 취하는 구문의 경우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구문이 아니므로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 개입, 대명사 목적어, 그리고 대명사 목적어의 접어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의 개입, 수동태, 다중 전치사구, 그리고 전치사 동반이동과 관련해서는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6) a. He exercised in the office.
 b. He exercised steadily in the office.
 c.*The office was exercised in.
 d. He exercised in the office and in the room.
 e. Which office did he exercise in?
 f. In which office did he exercise?

문장 (6a)의 *exercised*는 보충어를 취하지 않는 1가 술어로서 *exercised in the office*는 동사가 전치사구 부가어를 취하는 구문이다. *exercised*와 전치사 *in*이 어휘소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in*과 *the office*가 전치사구를 형성한 후 *exercised*와 병합하여 동사구를 이룬다. 따라서 (6b)처럼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가 개입할 수 있다. 또 전치사구 부가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므로 문장 (6c)에서 보다시피 수동변형은 불가능하다. 전치사가 전치사구를 형성한 후 동사와 병합되므로 문장 (6d)와 같은 다중 전치사구가 문이 가능하며 의문사가 이동할 때는 전치사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6e)와 같은 전치사 좌초(stranding)뿐만 아니라 (6f)에서처럼 전치사 동반이동이 가능하다.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과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과 전치사구 부가어구문의 통사적 특성 비교

구분	전치사구보충어	전치사구 부가어
어휘소	형성하지 않는다	형성하지 않는다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의 개입	가능	해당 없음
대명사 목적어	가능	해당 없음
대명사 목적어의 접어화	불가능	해당 없음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의 개입	가능	가능

수동태	가능	불가능
다중 전치사구	가능	가능
전치사 동반이동	가능	가능
전치사구 형성	가능	가능

4. 국면불가침조건과 전치사구 보충어 및 전치사구 부가어

Chomsky(2001, 2004)에서 제시된 국면불가침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은 생성문법의 대표적인 국부성조건(locality condition)으로서 기존의 여러 국부성 조건이나 제약을 포용하는 상위의 국부성 조건이다. Horstein, Nunes, and Grohmann (2006: 348)에서는 국면불가침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8)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In a phase α with head H ,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outside α ,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s.

위의 국면불가침조건에 의하자면 어떤 국면의 내부에 있는 요소는 국면 외부에 있는 다른 요소와 통사적 작용을 실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국면의 핵(head)과 가장자리(edge position)에 있는 요소는 국면 외부에 있는 요소와 통사적 작용에 참여할 수 있다. 국면의 정의와 관련해서 Chomsky (2004: 8)와 Chomsky (2005: 10)는 국면을 보문소구(complementizer phrase)와 완전한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는 타동동사구(transitive verb phrase)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비타동사구(nontransitive verb phrase)와 전치사구는 순수 국면으로는 간주하고 있지 않다.³⁾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의 경우는 전치사구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전치사구 보충어구문과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에서 전치사구의 국면성을 논의해보겠다.

문장 (5a) ~ (5p)에서 다루었던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이 의문사 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9a)~(9f)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9) a. [_{PH2} She [_{PH1} talked [_{PP} to the strange man]]].
 b. [_{PH2} Who did you [_{PH1} talk [_{PP} to _{PH1}]]]?
 c. [_{PH2} To whom did you [_{PH1} talk _{PH1}]]]?
 d. [_{PH2} They [_{PH1} talked [_{PP} about the new topic]]].
 e. [_{PH2} What did they [_{PH1} talk [_{PP} about _{PH1}]]]?
 f. [_{PH2} About what did they [_{PH1} talk _{PH1}]]]?

3) 국면을 이루는 타동구문은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을 취하는 구문이라면 모두 타동구문에 속할 수 있다.

국면을 타동구문과 보문소 구문으로 국한해서 보면 문장 (9a)는 두 개의 국면으로 되어있다. 문장 (9b)에서는 의문사 이동이 첫 번째 국면의 가장자리를 들린 후에 두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였다. 전치사 동반이동이 일어난 문장 (9c)의 경우도 첫 번째 국면의 가장자리를 들린 후에 두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였다. 문장 (9b)와 (9c) 모두 의문사 이동이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고 있다. 문장 (9e)와 (9f)에서도 의문사 이동이 모두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고 있다. 전치사를 국면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전치사구 보충어 구문에서 전치사를 동반한 의문사이동과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은 의문사 이동 모두 국면불가침조건으로 문장의 문법성을 설명해낼 수 있다.

다음은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에서 의문사이동을 살펴보자.

- (10) a.*_[PH2] Which party did you [_{PH1} talk [_{PP1} to her] [_{PP2} after]]]?
 b. _[PH2] [_{PP2} After which party] did you [_{PH1} talk [_{PP1} to her]]]?

문장 (10a)는 두 개의 국면으로 되어 있는 구문이다. 첫 번째 국면에 두 개의 전치사구가 있으며 첫 번째 전치사구는 동사 *talk*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는 보충어이고 두 번째 전치사구는 부가어에 해당한다. 문장 (10a)에서 의문사 *which party*는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린 후 두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한다. 하지만 문장 (10a)는 비문이다. 문장 (10b)에서는 의문사 *which party*가 전치사 *after*를 데리고 문장 (10a)에서 처럼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린 후 두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였다. 문장 (10a)와 (10b)가 모두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므로 국면불가침조건으로는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치사구 부가어를 국면으로 간주해보자. 전치사구 부가어가 국면을 이룬다면 문장 (10a)와 (10b)는 두 개의 국면으로 되어있지 않고 문장 (11a)와 (11b)처럼 세 개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 (11) a.*_[PH3] Which party did you [_{PH2} talk [_{PP} to her] [_{PH1} after]]]?
 b._[PH3] [_{PH1} After which party] did you [_{PH2} talk [_{PP} to her]]]?

문장 (11a)에서 의문사 *which party*는 재병합금지제약 비국부성제약(*remerger constraint*) 때문에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리지 못하고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거쳐 세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⁴⁾ 의문사구 *which party*가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4) Radford (2006: 204)는 재병합금지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 No constituent can be merged more than once with the same head.

재병합금지제약에 의하면 핵과 이미 병합한 보충어는 동일한 핵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수가 없다. 따라서 *after*

자리를 들리지 않고 두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게 되며 따라서 문장 (11a)의 비문성을 국면불가침조건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문장 (11b)의 경우는 의문사 *which party*가 전치사 *after*와 함께 동반이동을 한 경우로서 첫 번째 국면인 전치사구 부가어가 이동한 경우다. 따라서 *after which party*의 관점에서는 두 번째 국면이 첫 번째 국면이 되고 세 번째 국면이 두 번째 국면이 된다. *after which party*는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린 후에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였으므로 문장 (11b)는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게 된다. 전치사구 부가어를 새로운 국면으로 간주할 경우 문장 (11a)와 (11b)의 문법성의 차이를 국면불가침조건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⁵⁾

전치사구 부가어가 국면이 될 수 있다면 국면의 가능성을 전치사구 보충어에까지 확대해 보기로하자. 전치사구 부가어와 전치사구 보충어가 모두 국면을 형성한다면 문장 (11a)와 (11b)는 문장 (12a)와 (12b)처럼 네 개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 (12) a.*[_{PH4} Which party did you [_{PH3} talk [_{PH2} to her]
 [_{PH1} after ____]]?
 b. [_{PH4} [_{PH1} After which party] did you [_{PH3} talk
 [_{PH2} to her ____]]?

문장 (12a)의 첫 번째 국면과 두 번째 국면은 모두 전치사구로서 지정어 자리가 비논항 자리이다. 세 번째 국면은 지정어 자리가 논항자리이며 네 번째 국면은 첫 번째 국면과 마찬가지로 지정어 자리가 비논항 자리이다. 의문사 *which party*는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재병합금지 제약 때문에 들리지 못하고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로 가게 된다.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에서 비국부성조건(anti-locality) 때문에 세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리지 못하고 네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⁶⁾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와 세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리지 않았으므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게 되며 따라서 전치사구 부가어와 전치사구 보충어가 모두 국면을 형성하는 문장 (12a)의 비문성을 국면불가침

와 병합한 *which party*는 *after*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 의문문이나 수동구문에서 동사구의 목적어가 동사구를 빠져나가는 경우 동사구의 지정어 자리를 들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동사구에 경동사구가 설정되고 동사구를 내포하는 경동사구가 동사구와 함께 하나의 국면을 형성하므로 의문사 이동이나 수동변형의 경우 이동하는 요소는 동사구의 지정어자리 대신 경동사구의 지정어 자리를 점유하여 경동사구를 빠져나가면 이는 국면불가침조건이나 재병합금지제약을 위배하지 않는다.

- 5) 국면의 핵 자리와 지정어 자리에서는 국면의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면의 개념은 어떠한 요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섬(island)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면불가침조건은 실제로 국면 내부에서 국면외부로의 이동을 차단하기보다는 이동이 국면단위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Huang (1982)의 적출영역조건(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에서 부가어를 어떠한 요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섬으로 간주하는 접근방법이나 Uriagereka(1999)에서 부가어를 우선 발음화 시키는 다중발음화(Multiple Spell-out)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 6) 비국부성제약은 Grohmann (2003)에서 제안된 조건으로서 이동이 지나치게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제약이다. Grohmann (2003)은 문장구조를 동사영역(V-domain), 시제영역(T-domain), 그리고 보문소영역(C-domain)으로 나누고 같은 영역에 내에서의 이동은 비국부성제약을 위배한다고 제안한다.

조건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문장 (12b)의 경우는 국면인 의문사구 *after which party*가 첫 번째 국면이 되므로 *after which party*의 관점에서는 두 번째 국면, 세 번째 국면, 그리고 네 번째 국면이 각각 첫 번째 국면, 두 번째 국면,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이 된다. 의문사구 *after which party*는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린 후에 비국부성제약 때문에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리지 못하고 세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⁷⁾ 따라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게 되며 실제로 정문인 문장 (12b)의 문법성을 국면불가침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면의 자격을 모든 전치사구에 확대해서 적용하기 보다는 전치사구 부가어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전치사구를 국면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구 부가어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실험적 근거를 동사구 내의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의 의무적 전치사 동반이동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전치사구 부가어가 국면을 이룬다는 사실을 명사구 내의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의 의무적 전치사 동반이동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 (13) a. [_{PH4} Who [_{PH3} owns the house [_{PH2} the top of which I [_{PH1} repaired _]]]]?
 b. [_{PH4} Who [_{PH3} owns the house [_{PH2} of which the top _ I [_{PH1} repaired _]]]]?
 c. * [_{PH4} Who [_{PH3} owns the house [_{PH2} which the top of _ I [_{PH1} repaired _]]]]?
 repaired _]]]]?

문장 (13a)는 네 개의 국면으로 되어 있는 문장으로서 관계절 내에서 관계사구 *the top of which*가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린 후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구문이다. 관계사구 *the top of which*에서 핵인 *top*과 전치사구 *of which*는 의미역 관계가 아니므로 핵과 보충어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핵과 부가어 관계를 형성한다. 즉 *of which*는 전치사구 부가어로 볼 수 있다.

문장 (13b)에서는 두 번째 국면 내에서 관계사 *which*가 전치사 *of*와 함께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 뒤 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이동하였다. 전치사 *of*를 동반한 관계사 *which*의 이동은 두 번째 국면 내에서 이루어진 이동으로서 두 번째 국면을 빠져나가지 않았으므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사 *which*가 전치사 *of*를 동반하지 않고 문장 (13c)처럼 혼자서 지정어의 앞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문장 (13b)와 문장 (13c)의 문법성의 차이를 국면을 보문소와 타동사 구문에 국한시킨 국면불가침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7) 문장 (12b)에서 *talk to*는 외부의미역과 내부의미역을 할당하는 2가술어로서 논항구조를 형성하는 동사영역을 형성한다. 따라서 *which party*는 전치사 *to*가 형성하는 첫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들린 후 동사 *talk*가 형성하는 두 번째 국면의 지정어 자리를 비국부성제약 때문에 들리지 못하고 마지막 국면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게 되며 따라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치사구 부가어를 국면으로 간주해보자. 전치사구가 국면을 이룬다면 문장 (13c)는 네 개의 국면으로 되어있지 않고 문장 (14a)처럼 다섯 개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 (14) a. *[_{PH5} Who [_{PH4} owns the house [_{PH3} which the top [_{PH2} of _] I [_{PH1} repaired _]]]]?
 b. [_{PH5} Who [_{PH4} owns the house [_{PH3} [_{PH2} of which] the top _ I [_{PH1} repaired _]]]]?]

관계사 *which*는 이미 종속절의 지정어 자리로 비논항 이동을 한 *the top of which*의 일부로서 재병합금지제약 때문에 두 번째 국면인 전치사구의 지정어 자리를 들리지 못하고 세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게 된다. 두 번째 국면에서 관계사 *which*가 전치사 동반이동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국면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셈이 되므로 문장 (14b)처럼 국면이 다른 국면 내에서 이동하는 상황이 도출된다. 이러한 이동은 국면을 빠져나가는 이동이 아니므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명사구 내에 있는 전치사구 부가어를 국면으로 인정할 경우 전치사구 부가어 구문에 있어서 관계사의 의무적인 전치사 동반이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전치사구 부가어가 국면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5. 맺음말

국면불가침조건은 생성문법의 대표적인 국부성 조건으로서 국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국부성조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이론적인 판단이 달라진다. Chomsky (2004)와 Chomsky (2005)에서처럼 국면의 개념을 보문소구(*complementizer phrase*)와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을 모두 가지고 있는 타동사구(*transitive verb phrase*)에 국한시킬 경우 부가어 전치구에 있어서 의문사이동과 관계사 이동이 반드시 전치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치사구를 의미역을 할당 받는 보충어 전치사구와 의미역을 할당 받지 않는 부가어 전치사구로 구분하고 전치사구 부가어는 전치사구 보충어와 다르게 국면을 형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형성해야 함을 실험적 근거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전치사구 부가어가 독립적인 국면을 형성한다는 본 연구의 제안은 국면불가침조건의 설명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구 부가어가 전치사구 보충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Chomsky, N. 2001.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ITWPL* 20.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Belletti (ed.).
Chomsky, N. 2005a. Three Factors in the Language Design. *Linguistic Inquiry* 36, 1-22.
Chomsky, N. 2005b. On phases, m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Grohmann 2003. *Prolific Domains. On the Anti-Locality of Movement Dependencies*.
Amsterdam: Benjamins.
Horstein, Nunes, Grohmann. 2006. *Understanding Minimalism: An Introduction to Minimalist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C-T. James.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IT.
Horstein, Nunes, Grohmann. 2006. *Understanding Minimalism: An Introduction to Minimalist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dford, A. 2006. *Minimalist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riagereka, J. 1999. Multiple Spell-out. In *Working minimalism*, ed. S. Epstein and N. Horstein, 251-282. Cambridge, Mass.: MIT Press.

조기석

130-79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392-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E-mail: d9501001@hanmail.net

접수일자: 2010. 11. 17
수정일자: 2010. 12. 14
게재일자: 2010. 12. 14